

농업관측정보

채소관측

□ 고랭지 채소류 가격 약세 지속

- ▶ 고랭지채소 출하량 증가로 8월 가격 작년보다 낮을 전망
 - 고랭지배추 출하량 5% 증가하여 작년보다 낮은 4,000원 전망
 - 고랭지무 출하량 7% 증가하여 작년과 평년보다 낮은 6,500원 전망
 - 고랭지감자 출하량 2% 증가하고 노지봄감자 저장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15,000원 전망
 - 양배추 출하량 7%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2,500원 전망
- ▶ 고추·양파 생산량 감소로 8월 가격 작년보다 높을 전망
 - 고추·양파 생산량 감소와 저장수요 증가로 가격 강세이지만 양파는 9~10월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
 - 마늘 생산량 많고 재고량 남아 있어 가격 약세 지속 전망
- ▶ 가을·겨울작형 재배의향 증가로 출하기 가격 기대수준 이하 전망
 - 가을배추·무·감자 출하기 가격 상승 기대로 재배의향면적 3~6% 증가 전망
 - 가을당근·양배추 재배의향면적 작년보다 2~3% 감소하지만 평년과 비슷할 전망
 - 월동배추·무, 겨울대파·양배추 작년 출하기 가격 좋아 재배의향면적 1~8% 증가 전망
 - 겨울당근 재배의향면적 작년보다 6% 감소하지만 평년과 비슷할 전망

과일관측

□ 올해 사과 생산량 42만톤, 노지온주는 48만톤 전망

- ▶ 사과 생산량 작년보다 3% 감소, 배는 비슷할 전망
 - 사과 생산량은 수정율 및 착과율 저조로 작년보다 감소할 전망
 - 7월 햇사과(쓰가루) 가격 작년보다 출하량 감소로 강세 전망
 - 7월 이후 배가격 저장물량 적으나 품질이 낮아 보합세 전망(3만 2천~3만 5천원)
- ▶ 노지온주 생산량 작년보다 29% 감소, 단감은 5% 감소할 전망
 - 노지온주 심한 해거리 현상으로 착과량 큰 폭으로 감소, 수확기 가격 상승할 듯
 - 7월 하우스온주 가격은 대체과일 공급량 증가로 약세 전망
 - 단감 생산량은 성목면적과 착과량 감소로 작년보다 5% 감소할 전망
- ▶ 포도 생산량 작년보다 3% 감소, 복숭아는 2% 감소할 전망
 - 포도 캠벨얼리 생산량 작년보다 6% 감소한 22만톤 전망
 - 7월 포도가격은 공급량 증가하나 품질이 좋아 보합세 전망
 - 7월 복숭아 월봉가격은 공급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좋아 강보합 전망

과채관측

□ 과채류 가격 평년보다 낮은 약세 전망

- ▶ 수박, 오이 가격 작년보다 낮을 듯
 - 수박 출하량 3% 증가하여 작년보다 낮은 9,500~1만 500원 전망
 - 백다다기오이 출하면적 6% 증가하여 작년보다 크게 낮은 1만 9,500원 전망
 - 주키니 호박 출하면적 7% 증가하여 작년보다 낮은 6,800원 전망
- ▶ 토마토, 애호박 가격 평년보다 낮은 약세일 듯
 - 토마토 출하량 1~2% 적어 작년보다 높지만 평년보다 16~21% 낮은 수준일 듯
 - 애호박 출하량 4% 감소하여 작년보다 높지만 평년보다 낮은 7,700원 전망
 - 일반풋고추 출하량 2% 많고 소비대체재인 오이맛고추도 많아 평년보다 28% 낮을 듯
- ▶ 토마토, 오이 7월 정식의향 증가, 9월 이후 가격 농가 기대수준 못미칠 듯
 - 토마토 출하기 가격상승 기대로 충청·강원 지역 2~3% 증가
 - 백다다기오이 작년 출하기 가격이 좋아 강원 지역 2기작 6% 증가
 - 풋고추 작년 출하기 가격 좋아 2% 증가

축산관측

□ 육계가격 1,600~1800원 예상

- ▶ 종계 감소로 사육수수 11.1% 감소
 - 병아리 생산수수 감소로 8월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11.1% 감소한 7,569만수 전망
- ▶ 도계수수 감소, 올림픽 특수 예상으로 육계 가격 강세 전망
 - 8월 도계수수도 전년보다 11.0% 감소한 5,439만수 전망
 - 말복과 북경 올림픽(8월 8일부터)으로 수요 증가 예상
 - 8월 육계 가격 강세(1,600~1,800원) 예상
- ▶ 비축과 수입량 증가로 가격 상승 제한적
 - 비축량이 전년대비 9.2% 증가하고 수입량도 많아 가격 상승 제한적
 - 8월 중순 이후 수요 감소로 육계 가격은 하락세 예상
- ▶ 9, 10월 육계 가격 급락 우려!
 - 종계 환우계군 병아리 생산 가담, 비축물량 많아 공급 과잉 예상
 - 닭고기 수요 감소시기로 육계 가격 급락 가능성 높아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52페이지에서 연결

2008년 농업법은 제정과정에서 품목 소득보조 정책에 대한 개혁 부족과 과도한 정부지출이라는 행정부의 반대와 보호주의로의 역행이라는 WTO 회원국들의 비난이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자국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농가소득 안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비하여 마케팅론의 융자 단가를 인상하였으며, 소득 안정을 확고히 하고

자 경기대응 직접지불의 목표가격인상과 품목을 확대하였다. 또한 농가의 평균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수입(收入)보전직접지불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자국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농업 보조금을 확대한 미국의 결정은 식량자급률이 27%에 불과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처:농협경제연구소)